4차 산업혁명시대…미래를 디자인하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전에 출품될 예정인 이이남 작가의 'Vertual Fall'

▶신개념 주거 스타일을 제시하는 'Smog Free Tower 프로젝트'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마스터플랜 발표

'아시아 더 퓨처' 등 4개 주제 본전시
미래 성찰하고 다양한 모습 그려
기술·디자인 어우러진 미디어아트
국제심포지엄·국제학술대회
벤처창업콘퍼런스·디자인페어도

제7회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미래들'(FUTURES)을 주제로 오는 9월8일부터 10월23일까지 46일간 펼쳐진다.

올해 행사는 크게 본전시, 특별전, 국제학술행사, 디자인비즈니스, 특별프로젝트 등을 통해 현재 최대 이슈로 떠오른 '4차산업혁명'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본전시는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오래된 미래'(Ancient Futures), '미래를 디자인하자'(Design! the Future), '미래를 창업하자'(Startups in the Future), '아시아 더 퓨처'(ASIA_The Future) 등 4개 주제로 펼쳐진다.

오프닝 전시 성격인 '오래된 미래'는 과거·현재·미래 순서로 구성해 과거에 꿈꿨던 미래를 되새겨 보고 다가올 미래를 성찰한다.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영준 계원예술대 교수가 큐레이터를 맡았으며 5개국 디자이너 12명의 작품 40개가 배치된다.

메인 전시로 꼽히는 '미래를 디자인하자'는 '디자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미래사회 모습을 그린다. '미래 제품들', '미래 집과 도시', '미래 사회', '미래 건강관리', '미래 운송수단', '미래 쇼핑라이프', '신에너지와 일상생활'(Energy) 등 7개 소주제로 나눠 과학과 상상력이 결합한 작품을 전시한다.

'미래를 창업하자'는 산업 자동화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자리다. 미래 창업 비전을 제시하고, 3D 프린팅과 디자인 융합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와 1인 디자인 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전당에서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발굴해 투자자와 매칭하는 '벤처창업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또한, '아시아 더 퓨처'(ASIA_The Future)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독창적 문화를 담은 디자인 작품을 전시한다.

특별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The 4th Media Art'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전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새로운 기술과 예술, 디자인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광주 이이남 작가와 대만 왕리엔 작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미술관 야외광장에서는 '빛'을 주제로 한 특별프로젝트 'HALO'가 진행된다. '2017~18 한국·영국 상호 교류의 해'를 기념해 추진한 기획이다. 한국과 영국 작가로 구성된 '김치앤칩스' 팀이 참여해 250개의 거울을 활용, 지름 2m 크기 인공 태양을 선 보일 예정이다. 6월 중 영국에서도 같은 작품을 설치한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인 '미래들'에 대한 담론의 장도 펼쳐진다. 9일 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사전포럼과 9월9일부터 이틀간 '미래들'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조선대에서는 ADADA, 디지털융복합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디자인비즈니스 프로그램도 곳곳에서 열린다. 스타트업 전시, 벤처창업컨퍼런스와 함께 9월 8일부터 15일간 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아트콜라보 제품 전시, 지역 우수제품 전시,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자인 마켓 등을 포함한 '디자인 비즈니스라운지'가 열린다. 비엔날레전시관에서도 행사 기간 동안 우수 디자인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디자인페어'가 진행된다.

그밖에 광주시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분야도 비중있게 다룰 방침이다. 기아자동차, 한국전력, 광주그린카진흥원 등과 미래 자동차, 신 에너지 분야 등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장동훈 총감독은 "그동안 디자인 비엔날레는 주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담론을 제시해 왔다면, 올해는 산업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생활측면에서의 디자인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의 062-611-517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보성군립백민미술관 '예술과 몸'전 7월 30일까지

예술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의 몸을 꼽는다. 인체가 가진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보성군립백민미술관에서 '예술과 몸'전이 7월30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고윤숙·국막례·김선희·김수연·김은아·김필수·박수만·양병구·이시윤·이영실·이현숙·최영화·한남순 작가가 참여한다. 회화를 비롯해 사진·설치 등 다양한 장르로 몸을 표현한 작품 70여점을 선보인다.

미술에서 인간에 대한 탐구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이어져 왔다. 서양미술이 누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동양은 외형 묘사에 인격과 내면세계까지 표출했다는 점이 차이다.

박수만 작가의 '아픔'은 내면에 초점을 맞춘 서양화다. 작품 속 인물들은 옷을 벗은 원시인에 가까운 모습이다. 큰 머리, 가느다란 팔다리, 늘어진 젖가슴 등 인체를 왜곡한 표현으로 작품 주제를 드러낸다.

김선희 작가가 출품한 '수상한 가족'은 배트맨, 슈퍼맨 등 영화 속 복장을 입은 가족이 등장한다. 옅은 미소를 띤 채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강아지를 안은 가족 모습은 유쾌한 분위기를 전달한다. 문의 061-853-0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수만 작 '아픔'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6월호

광주의 꿈 '문화 먹거리' 현주소

최완수 간송미술관 소장의 문화재 연구 외길

빛고을 광주의 또 다른 닉네임은 '문화도시 광주'다. 예향 광주를 넘어 예술, 산업, 관광까지 '문화'라는 틀 안에 녹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광주문화수도 육성은 200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꾸준히 진행돼 오고 있다.

예향 6월호는 문화광주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청년 문화인들도 만나, 그들의 꿈과 비전을 들었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50여 년간 겸재 정선과 추사 김정희를 연구해왔던 최완수 간송미술관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소장을 만났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켰다면 그는 간송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문화의 정수를 찾아내는 데 진력을 쏟았다. 최근 추사 김정희 작품 세계를 집대성한 '추사 명품'을 펴낸 최 소장을 만나 외길 인생에 대해 들었다.

기획 '국가어항 프로젝트'에서는 물김 위판 전국 1위인 진도 수품항을 찾았다. 수품항은 사면이 바다인데다가 조류가 빠르게 도는 지역이라 영양분이 풍부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래 지역거점어항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수품항을 찾아 생생한 항구 소식을 전한다.

'남도 美味樂'이 찾은 곳은 월출산으로 유명한 영암이다. 영암은 일본 '아스카 문화의 아버지' 왕인박사와 가야금 산조의 효시 악성 김창조 선생 등을 배출했다. 매년 4월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와 7~8월에 개장하는 기찬랜드는 영암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선사한다.

메밀은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 음식이다. 메밀을 먹으며 건강을 되찾았다는 메밀 예찬론자 이완옥 씨를 만나 메밀에 담긴 다양한 음식 이야기를 들었다.

'화제의 사람들'에서는 12번째 지리산 화대종주(화엄사~대원사)하는 '나사모' 산우회를 만나 종주에 빠진 사연과 산행 비법 등을 들었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는 오랑주리 미술관을 방문해 남다른 예술 교육 현장을 소개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

광주문화재단 '경자씨와 재봉틀Ⅳ' 수강자 모집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경자씨와 재봉틀Ⅳ-청춘런웨이' 참가자 15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9일부터 7월14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총 10회 열린다. '경자씨를 찾습니다', '경자씨는 디자이너', '경자씨의 도시락'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대상은 50~60대 여성들로 오는 4일까지 홈페이지(www.gjarte.or.kr)에서 참여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gjarte@hanmail.net) 제출하거나 전화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670-5763~4. /김용희기자 kimyh@